



소재지 : 대전시 중구대흥 3 동 407-1 (환호빌딩)
 지부장 : 의학박사 심 운 택

관할 지역

- 충남대전시 일원 (노동부 대전지방사무소 관할)
- 충북전지역 (노동부 청주·충주 지방사무소 관할)

설립배경

충남·북 지역은 제 2의 수도권이라고 불리울 만큼 교통과 행정의 심장부로서 그 역할이 가속화 되어가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수도권 분산정책에 따라 산업체들의 지방공단입주 현상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당 협회에서는 “정부의 직업병 예방 민간전문기관 주도화 기본방침”이라는 기치아래 동 지역내에서 산업보건 정착의 지역적, 기능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84.10.10 대전산업보건센터를 설립케 되었다.

지역사업추진 전망

한마디로 말해 충청도 특유의 기질처럼 조용하게 그리고 천천히 착실하게 정착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85년도 당 협회에서 실시한 보건관계자 교육 참석율을 보면 평균 137%로서 전국 1위를 자랑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주는 물론 산업보건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전문인들의 관심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업주들의 산업보건사업에 대한 요구와 협조도가 대단할 뿐 아니라 지역 유관기관들의

지역특성

당 지부관내에는 대전의 제 1 공단, 제 2 공단 및 충북의 청주공단을 포함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 약 1,839 개소에 근로자수는 146,000 명에 이르고 있으나 규모로 볼때 대



부분이 중소기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충남·북 일원의 비교적 넓은 범위를 이루고 있는 당 관내 지역에는 대규모 방적업, 섬유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업종의 공단구성과 탄광 및 시멘트 제조업체가 산간지역에 산재되어 있어 지리적 어려움을 안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자연에 도전하여 이룩하여 놓은 대청댐, 충주댐 일대의 경관과 충청도 지역 본래의 고요하고 쾌적한 환경은 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에 무언의 촉매작용을 하리라 기대된다.

전폭적인 지원, 보건관계자들간의 화합, 의견교환등은 이 지역 산업보건 정착에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부의 중점사업방향

○ 당 센타 관내에는 영세중소기업체들이 많아 우선 이들을 중심으로한 산업보건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업주에게는 경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는 보다 실질적으로 건강증진 및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집단보건관리체제로 전환,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와함께 직업병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채용검진, 특수검진, 작업환경측정에



철저를 기하고 또 당 센타에서 실시한 모든 근로자들에 대한 검진기록을 통하여 계속적인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 이 밖에도 관내 대학연구기관 및 여타 의료기관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보급과 지역내 영세 사업장에 대한 무료검진 사업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내 대전, 천안, 보령, 청주, 충주 노동부 지방사무소 여러분들의 지원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84년도까지 대전지역 특수검진을 맡아오던 대전 을지병원이 '85년도 부터 당 지부에서 전담토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 충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이다.

